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19살 학생이며,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줄 알았던 일본의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릴 적 독립기념관에서 본 독립 선열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 중략 …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국난극복의 성지이며, 대한민국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을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알리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하게 될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더욱 알려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주시길 청원합니다.